KVCA MONTHLY MAGAZINE vol.144

VC Discovery



이달의 VC人 Zoom-In
한국거래소 이호성 부장

해외자료
2019년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을 달성한 신흥국 보고

법·제도 Q&A
상환주식의 상환과 관련된
상환이익의 판단 시점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6
2020 JUNE



소통의 시작

푸른 하늘을 봐도 여행을 떠나도 외롭다.
떠나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봐도 영화를 봐도 외롭다.
외로움이 숙명처럼 주변을 맴돈다.

취미활동을 해도 좋아하는 게임을 해도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외로움을 피해 여행을 떠나고 사람도 만나지만
그속에서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간다.

혼자 텔레비젼을 보고 혼자 음식을 해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술을 마신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외롭지만 외롭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외로우면 외롭다 하고
울고 싶으면 꾹꾹 참지 말기를
눈물은 속말을 대신한 이야기다.
그게 소통의 시작이다.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2020 JUNE | Vol.144

CONTENTS

Market Trend

04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06 해외자료
2019년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을 달성한 신흥국 보고

Investment Insight

08 이달의 VC人 Zoom-In
한국거래소 이호성 부장

11 법·제도 Q&A
상환주식의 상환과 관련된 상환이익의 판단 시점

With Startup

1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
투자 협력·M&A 지원센터

KVCA & Members

19 KVCA 소식
2020년 4차 산업혁명 벤처투자협의회 제4차 회의 개최

20 회원사 소식

24 연수원 소식

26 Epilogue



발행일 2020년 6월 10일(통권 144호 6월) | **발행인** 정성인 | **편집인** 오세헌 |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 **홈페이지** www.kvca.or.kr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

2020년 블라인드 VC펀드

출자 규모 : 총 600억 원 (4건 선정 예정)

출자 공고	5월 13일
제안서 접수	5월 29일
주간운용사 1차 심사	6월 1일~16일
현장 실사	6월 18일~19일
대체투자상품선정위원회 2차 심사	6월 25일
대체투자상품 최종 선정	6월 26일

광주 테크노파크

2020년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자 규모 : 총 100억 원 (2건 선정 예정)

출자 공고	5월 25일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6월 19일
1차 서면심사	6월 26일
2차 대면심사	별도 안내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확정 직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펀드 출자사업

출자 규모 : 총 50억 원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공고 → **출자제안서 접수(서류)** → **신청업체 자격검토**

www.egbiz.or.kr / 5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6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6월중

↓

선정위원회 심사 (PT 심사) ← **경기도 출자대상 선정** ← **조합결성**

(선정위원회) / 6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6월중

(일반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 / 9월중

한국성장금융

은행권일자리펀드(2차)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

구 분	출자금액	운용사명
루키리그	125억 원	위벤처스
	125억 원	티인베스트먼트
일반리그	200억 원	뮤렉스파트너스
	200억 원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200억 원	유안타인베스트먼트

해외자료

2019년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을 달성한 신흥국 보고

※ 본 원고는 해외 언론 '크런치베이스'에서 보도한 기사를 번역 및 편집한 자료로 본지의 기획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MPEA(Emerging Markets Private Equity Association, 신흥시장 사모협회)는 작년 한해 협회의 소속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인도, 중동부유럽(CEE) 및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등 신흥국가들이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신기록을 세웠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이들 시장에서 달성한 벤처투자액이 126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274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EMPEA는 신흥국 즉 이머징 마켓에서 활동하는 사모투자금융 관련 협회로 기관투자자, 펀드 매니저 등 약 300곳 이상의 개인 및 법인이 속해있으며 이들은 약 130개 국가에서 5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PEA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유독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신흥국내 벤처투자금액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참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 총 약 7억6천4백 달러 규모에 달하는 53건의 투자가 집행됐으며, 이는 과거 2015년도의 실적이었던 7천만 달러에 비해 약 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투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5천8백만 달러는 나이

EM VC Investment BY Geography

Record Year According To EMPEA Data

	2015	2016	2017	2018	2019	
Region/Country	USDm	USDm	USDm	USDm	USDm	Deals
China	12,071	13,925	16,652	24,918	15,007	595
India	4,403	1,958	1,811	3,822	4,436	371
Southeast Asia	430	517	716	1,631	2,574	256
Africa	70	108	111	183	764	53
CEE & CIS	219	103	164	181	259	39
Latin America	230	548	599	1,412	3,242	242
Middle East	276	656	94	61	153	45
Pan Emerging Markets	24	45	95	118	192	3
Emerging Markets	**18,014**	**18,216**	**20,604**	**32,925**	**27,434**	**1,681**



지리아 내에서만 투자됐으며, 물류 스타트업 집라인이 유치한 약 1억9천만 달러는 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거래 건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투자 실적 뒷편에는 500스타트업(미국), 알제브라벤처스(이집트), CRE벤처캐피탈(남아공), 굿윌인베스트먼트(유럽) 등이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MPEA의 벤처캐피탈 부문 대표인 줄리 루볼로는 크런치베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발발한 코로나19 이슈 속에서 VC 및 스타트업 생태계 부문에서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작년 이들 시장에서 투자 실적이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크런치베이스는 라틴아메리카 시장에서 매년 연속으로 VC 하우스 숫자들이 2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작년에는 벤처투자 및 펀드레이징 측면에서 기록적인 한 해였다는 내용의 뉴스를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한 투자 거래 중 대부분 핀테크, 물류 및 전자상거래 등의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에듀테크 및 헬스케어와 같은 산업은 이미 주요한 투자 테마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EMPEA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특히 인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의 유망한 기술 등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루볼로는 "이러한 업종의 업체들이 신흥 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금이나 파이낸싱에 대한 접근성, 초기 플레이어로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 이라며 "신흥국의 강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고 덧붙였다.

08
VC DISCOVERY

이달의 VC 人 Zoom-In 한국거래소 이호성 부장



Q 6월호 '이달의 VC인 Zoom-In' 코너에는 VC 업계의 중요한 축인 회수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이호성 부서장을 모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이호성 부장입니다. 지난 2년간 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및 상장제도 담당 부서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위원 자격으로 VC협회에 파견되어 VC 업계의 투자 및 회수 활성화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근무할 때부터 혁신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의 확산을 위해는 거래소와 벤처투자 시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최근 몇 달 간 협회에서 지내면서 사무국 식구들은 물론, VC업계 및 관련 중소벤처 관계자 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특별하고 신선합니다. 역시 벤처투자 업계답게 참 젊고 역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VC인은 아닙니다만 아시다시피 VC 업계와 코스닥 시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VC에 대한 애정이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누구 못지않습니다. (웃음) 이번 'VC인 Zoom-In' 인터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정

한 VC인인 구독자 여러분께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봐주세요.

Q 거래소 상장부에서 협회로 인력을 파견한 소식을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배경에서 협회와 거래소 간에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경제 성장 및 혁신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로 혁신 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획안의 주요 골자 중에 우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장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회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 벤처투자 규모는 5년 연속 매년 역대 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하에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등 코스닥시장 IPO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투자-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거래소 상장정책 관점을 설명 드리고, 중소 벤처업계의 의견이나 투자변화의 흐름을 적시에 상장정책과 상장심사 반영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래소에서 상장심사 실무와 제도 부문을 담당한 경험을 살려서 투자-성장-회수의 중소벤처시장의 활력 제고, 나아가 코넥스/코스닥 시장의 발전에 대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조하고자 합니다.

회원사분들도 직접 뵙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 및 M&A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며 벤처투자 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Q 거래소에서 근무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코스닥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심사부장을 거쳐 일반기업 상장심사 및 진입-관리-퇴출제도 담당 부장을 맡아 일했고요. 중소 혁신성장 기업 상장 트랙으로 한정되어 운영되던 기술특례상장을 중견-대기업-외국기업 까지 확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고, 바이오-4차산업에 대한 질적 심사 기준도 정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IPO 제도 개선으로 진입제도의 문턱은 관리/퇴출기준 수준으로 충분히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장준비 기업에 대한 VC, IB의 투자-관리 체계개선 등을 통한 시장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IPO가 양적으로는 연 100여개사 상장, 약 2.5조원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VC 업계에서 보기에는 아직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요. 코스닥시장에서 유니콘/데카콘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주력기업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시장의 수요 기반도 강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문제 진단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많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노력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건인 코로나19 이야기를 빠트릴 수 없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VC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침체 국면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헬스케어, ICT플랫폼 등 언택트 산업들인데요. 이들이 지금 빛을 발할 수 있는 데에는 벤처캐피탈이 이러한 신산업 분야에 이미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협회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 물류·유통, 스마트 헬스케어 등 비대면 스타트업 대상 벤처투자가 '17년도 0.8조원에서 '19년도 1.7조원으로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언택트, 인공지능, 5G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를 받아 성장한 기업들이 상장 이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최근 가장 선진적인 진단키트 기업을 비롯,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K-바이오' 열풍을 이끌어갈 차세대 바이오기업들도 코스닥시장을 통해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들 중 언택트 및 바이오 관련 기업이 6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더 확대되어야하고, 회수 채널이 되는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코스닥 시장의 바람직한 미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성장형 기업들이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 등 상장관리체계도 지속 개선해나갈 예정이니 VC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Q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도 목표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거래소의 심사 관점이나, 제도 방향을 알려드리고, VC업계의 의견을 거래소 심사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다만 최초 코로나19 등으로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아서 아쉽고요.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통한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만큼, 우선 벤처업계 관계자 분들을 자주 만나 뵙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업계 의견이 코스닥 상장제도 및 상장심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독자분들도 필요하신 점은 언제든 편안하게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과 관련된 상환이익의 판단 시점

Q 상환주식의 상환이익의 계산 관련 기준 시점 및 준비금의 감소 제도?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1. 상환주식 상환을 위한 상환이익(=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관련된 상법 규정 및 해석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된 상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배당가능이익을 말합니다. 그런데, 배당가능이익을 활용한 주식회사의 경영활동인 이익배당, 중간배당, 자기주식 취득의 각 상법상 근거규정과는 달리 상환주식의 상환에 대한 상법 제345조에서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수 있다고

만 정하고 있을 뿐 이익 계산의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기준시는 당해 규정의 문언 및 상환의 특성을 이익배당, 중간배당, 자기주식 취득과 비교하였을 때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나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처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 주식회사의 의사기관이 숙고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이익배당 등과는 달리 우리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는 상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상환을 희망할 경우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의 상환의무를 발생토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환주식 주주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 동조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그 문언 또한 상환주식 주주의 권리 실현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승인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결산기를 기준 시점으로 한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결산기의 말일 이후에도 끊임없이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토대가 되는 순자산액은 계속해서 변동하므로 매 순간 마다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배당가능이익의 산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법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중간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그 재원이 되는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기준 시점을 일단 직전 결산기로 하되, 사후적으로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할 경우 이사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환 시점을 상환주식의 주주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에는 상법에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기준시점이 상법상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상환주식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 받을 수 있는 상환주식 주주가 회사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상환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상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1]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101423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의무상환방식에 따라서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상환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고,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결산재무제표에 따라 상환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법 제345조 제3항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의 경우, 그 재원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주주의 상환권 행사에 따른 상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주주총회를 통한 준비금 감액이 당해 년도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을 위해 순자산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준비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상법 제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법의 문언에 따른다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동시에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할 경우, 준비금은 결산기 다음년도 3월 내에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통해 감소된 것이므로 배당가능이익 산출을 위하여 순자산에서 공제될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소되기 전 금액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최초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준비금 감소 결의에 의해 법정준비금은 미처분 상태의 잉여금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이 되고,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2013. 6. 26. 상사법무과-2089)고 하여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고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기존 견해를 변경하여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한 후 그에 따라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가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2018.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고 밝히며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할 경우, 감소된 준비금은 차년도 이익 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에 반영된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상환주식의 상환의 재원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결산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익 배당과 달리 주주의 상환권 행사에 따른 상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환 완료 시점 이전까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준비금을 감소시킨다면 감소된 준비금은 상환의 재원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에 즉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하여 준비금을 감소시켜 마련한 재원은 당해 년도 투자자들의 전환상환우선주식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1) 김화진, '상환주식의 상환', 「인권과 정의」vol. 421, 대한변호사협회, 2011, 112p도 동일한 결론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

투자 협력

벤처투자 사랑방

5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본회는 5월 19일 '5월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및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대면 상담방식을 활용했다. 기업들의 질문사항과 IR자료를 사전에 VC 심사역에게 전달하고 온라인 상담을 추진하여 5건의 전화상담, 10건의 화상회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아일라 등 중소·벤처기업 15개사가 KB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3개사로부터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 대한 1:1 비대면 상담을 받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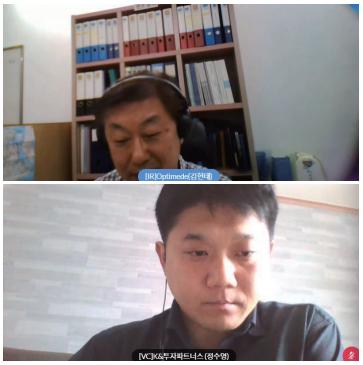
벤처투자사랑방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엔젤투자마트와 통합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벤처투자 사랑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 자금조달 전략수립과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투자유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벤처투자 로드쇼

2020 벤처투자 로드쇼 온라인 투자설명회

본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투자 분위기 회복을 위해 新의료제품, 비대면(언택트), D.N.A 및 BIG3 분야 등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할 계획이다. 5월 28일에는 식약처 허가 K-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첫 번째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IR은 식약처 신의료제품으로 허가받은 기업 중 바이오 전문기관인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추천받은 6개사와 12명의 국·내외 VC투자자가 참여했다. 이번 온라인IR을 계기로 K-바이오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향후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과 지역특화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IR도 이어질 계획이다.





투자 협력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연계 지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컨퍼런스 데이 개최

본 회는 5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컨퍼런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수 스타트업 6개사가 전문 투자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유치설명회[IR]를 진행했다.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업체를 선발해 업체별로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전달했다. 해당 6개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최된 '투자IR데이'에서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다.

또한, 1:1 투자상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기업 30여개사에 전문 투자기관과의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정보획득, 전문적이지만 이해하기 쉬운 상담 등 실질적인 상담내용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신청방법**

- 등록대상 : VC 협회 회원사
- 신청접수 : 이메일 제출(joohyun@gbsa.or.kr)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제출서류 양식은 문의처에 개별요청)
- 문의처 : kyr12@kvca.or.kr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2020년도 제1차 회의 개최

본 회는 5월 27일 '2020년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는 해양수산 관련 투자자들의 소통·교류를 통해 해양수산 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하고 유망기업 투자 가능성 검토 및 정책 방향 공유하고자 2017년도 발족 이후 매 분기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에 처음 개최했다.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회의를 진행했다. 2020년 첫 회의에는 협의회 회원사 20인, 해양수산부 7인을 포함하여 총 39명이 참석했고 특히 신규회원사 8개사 중 7개사가 참석하여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해양수산 유망투자기업 3개사(트레드링스, 아이스앤브이, 마식공)의 IR을 통해 참석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진행예정인 해양수산 기업현장방문과 투자심사역 양성과정의 일정 등을 공유했다.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사 현황(35개사)

연 번	소 속	연 번	소 속
1	수림창업투자	19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2	캐피탈원	20	마젤란기술투자
3	대성창업투자	21	메디치인베스트먼트
4	포스코기술투자	22	시너지아이비투자
5	농심캐피탈	23	인터밸류파트너스
6	세종벤처파트너스	24	케이런벤처스
7	비에이파트너스	25	이앤벤처파트너스
8	인라이트벤처스	26	비하이인베스트먼트
9	비앤케이벤처투자	27	동문파트너즈(신규)
10	비케이인베스트먼트	28	다담인베스트먼트(신규)
11	동훈인베스트먼트	29	가이아벤처파트너스(신규)
12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30	엔브이씨파트너스(신규)
13	센트럴투자파트너스	31	브릿지폴인베스트먼트(신규)
14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32	아이디벤처스(신규)
15	케이앤투자파트너스	33	비앤케이투자증권(신규)
16	대덕벤처파트너스	34	아스텍투자파트너스(신규)
17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35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신규)
18	웰릭스캐피탈	-	-

M&A 지원센터

5월 자문기관 M&A 매칭데이 개최

협회는 5월 20일, '5월 자문기관 M&A 매칭데이'를 본 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자문기관 매칭데이에는 M&A 매도 희망기업 2개사, 자문기관 3개사 등 총 5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했다.

물류자동화 설비 기업, 에너지 기술 기업이 매도 희망기업으로 참가하였으며, 활동우수 자문기관과의 1:1 매칭 상담을 통해 사업소개, M&A 희망조건 등을 협의했다.

자문기관 M&A 매칭데이는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M&A 희망기업의 실질적인 매칭지원을 통해 M&A 성공률 제고 및 M&A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 다음 자문기관 M&A 매칭데이는 7월 1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할 경우 본 회 M&A 지원센터(02-2156-2132, 2124)로 연락하면 된다.



코스닥기업 M&A 매칭데이 개최

본 회는 5월 27일, M&A 활성화를 통해 코스닥상장사,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주관, '코스닥기업 M&A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 관련 장비 및 소모품 제조업체, 헬스케어 관련 업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업종으로 기대되는 매도·매수기업이 주로 참가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매도희망기업 5개사의 IR피칭 기회를 제공하고, 코스닥상장사와 M&A 매도희망기업·자문기관 간 8건의 1:1 매칭상담을 진행했다.

본 회는 행사 당일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 실시 및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선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상장사,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며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간 만남의 장 횟수를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M&A거래정보망 이용안내

M&A 거래정보망 홈페이지가 중소벤처24 홈페이지와 통합·개편되었습니다.(www.smes.go.kr/mna)

이용안내

- M&A 거래정보망은 M&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 및 M&A 자문기관을 중심으로 매도·매수 DB를 구축하여 M&A 매칭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M&A 플랫폼입니다.

- M&A 거래정보망 이용을 원하시는 기업의 경우,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신용평가가 완료된 법인기업만 이용 가능(개인기업 불가)하며, 회원가입을 신청 하시면 운영자 승인 후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시 기업 기본정보 및 매수 또는 매도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는 신청자 동의하에 회원가입 승인 후 물건정보 교류 등을 위해 기업명 및 사업자번호 등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기업회원 및 자문기관에 공개됩니다.

- M&A 자문 및 매도·매수기업의 M&A 중개를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 M&A거래정보망 회원가입이 아닌 'M&A 자문기관 등록' 신청 후 M&A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A 자문기관 등록' 신청 문의는 협회 M&A지원센터(02-2156-2132, lym@kvc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M&A 거래정보망 운영기관은 회원가입 및 물건 등록 등의 정보를 승인, 취소, 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서비스

- M&A 정보서비스 : M&A와 관련된 주요뉴스 및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 정보와 개최 행사 및 소식, M&A 자문기관 정보 등 M&A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M&A 매칭신청 : 회원 로그인 시 등록된 매도·매수 기업정보 확인(기업명, 사업자번호 등 제외)이 가능하며, 특정기업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기업 상세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기업과의 매칭신청을 하시면 M&A 거래정보망 관리자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관리자 승인 후 해당기업의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매칭신청 방법

로그인 → 해당기업 클릭 → 하단 매칭신청 클릭 → 관리자 승인 후 정보 열람 가능

- M&A 물건 자동매칭 : M&A 거래정보망 회원가입 시 등록한 기업물건의 주 업종, 주 생산품/사업 키워드 입력정보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일치하는 기업 물건이 자동 매칭되는 서비스입니다.

- M&A 관심물건 등록: 관심 있는 기업물건이 있으신 경우, 관심물건 등록 기능을 통해 관심물건 목록에 저장하시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관심물건 등록 방법

로그인 → 해당기업 클릭 → 하단 매칭신청

KVCA 소식

2020년 4차 산업혁명 벤처투자협의회 제4차 회의 개최

협회는 2020년 4차 산업혁명 벤처투자협의회 제4차 회의를 지난 5월 20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업계 임원을 비롯한 투자심사역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VC 동향 정보와 투자활동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애자일소다 최대우 대표의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대우 대표는 인공지능의 개념 및 구성요소, 구동원리 등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연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의 미래와 벤처캐피탈이 AI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투자심사역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다음 5차 회의는 〈로봇저널리즘〉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역량강화에 조금 더 집중할 계획이다.



※ **협의회 가입문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박정원 대리(02-2156-2133, pjw@kvca.or.kr)

회원사 소식

데일리파트너스

데일리파트너스는 약정총액 43억 원 규모의 '데일리 스완슨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5호'를 결성했다. 운용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LP는 비상장 제약회사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펀드는 데일리 스완슨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4호(약정총액 31억 원)에 이은 후속 펀드로, 이번 스완슨 5호 결성으로 이후 데일리파트너스의 조합은 13개로 늘었다. 운용자산(AUM)은 기존 1,618억 원에서 1,66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추가 딜소싱 및 투자자 유치를 진행 중으로 연내 AUM이 2,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디티앤인베스트먼트는 한국투자증권과 최대 120억 원 규모의 'DTN-KIS 유니콘 2020투자조합'을 결성한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정민의 부사장과 한재만 상무가 맡는다. 이승석 대표와 이새봄 팀장은 핵심 운용인력으로 이름을 올린다.
운용 기간은 5년으로 초기 기업 투자보단 상장을 2~3년 앞둔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협의 중인 국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펀드 규모는 최대 150억 원까지 불어난다.

메디치인베스트먼트

메디치인베스트먼트가 부광약품의 덴마크 자회사인 콘테라파마의 후속 투자에 나선다. 최근 덴마크기업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의 길이 열리면서 프리IPO에 나선 것이다. 콘테라파마가 추진하는 5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에 단독 투자하며, 이는 지난해 7월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이후 두 번째 투자다. 이번에는 1차 투자보다 15배 이상 많은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에 책정된 콘테라파마의 기업가치는 1년 만에 25%가량 높아진 2,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조기 투자한 미국 바이오벤처 비리어드(Vyriad)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화항체 진단키트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비리어드는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메이오클리닉(Mayo Clinic)에서 20년 넘게 종양 용해성 바이러스 치료제를 연구·개발한 교수진들이 창업한 바이오벤처다. 중기 경영목표로 향후 2~3년내 기업공개(IPO) 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톤브릿지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는 최근 에치에프알의 투자금 40억 원을 전액 회수했다. 이번 회수를 통해 투자 원금대비 약 7배, 내부수익률(IRR)은 약 5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회수로 3배 이상의 수익을 남긴 수아랩을 뛰어넘는 수치다.
2015년 '2010KIF-스톤브릿지IT전문투자조합'으로 40억 원을 조달한 이후엔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에치에프알의 성공적 엑시트로 2010KIF-스톤브릿지IT전문투자조합의 청산 성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 조합은 현재 청산 절차 진행 중으로 2010년 결성된 KIF 자펀드 가운데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키움증권은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약정총액은 1,250억 원이며 운용 기간은 8년으로 펀드 주목적 투자는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이다. 두 회사 모두 그로쓰캐피탈에 강점을 보였던 만큼 스케일업 투자도 무난할 것으로 평가된다.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확장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200억 원대 자금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인라이트벤처스

인라이트벤처스가 투자한 진공단열 포장재 제조사 에임트는 올해 초 미래에셋대우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하면서 코스닥 입성 채비에 나섰다. 인라이트벤처스는 중장기 회수 목표를 원금대비 4~5배 수준으로 잡았다.

에임트 투자건은 벤처캐피탈과 피투자기업이 함께 나아가는 대표적인 사례로, 진공 단열재 생산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라이트벤처스가 대구시와 에임트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맡았다. 유통 대기업도 소개해주며 판로 확대를 도왔고, 코스닥 입성 추진 계획이 나오자 상장주관사 선정을 자문하면서 물밑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엑시트(자금 회수)의 관건은 기업공개(IPO) 성공 여부에 달렸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팔로우온 투자를 이어가며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중이며, 특히 '집토스' 팔로우온 투자는 사업 확장의 물꼬를 터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집토스는 좋은 집을 토스(Toss)한다는 의미를 띤 부동산 스타트업이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2018년 7월 집토스에 5억 원 첫 투자 집행을 시작으로 10개월 만인 2019년 5월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12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인력 채용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2019년 유니온투자파트너스의 심사역이 소개한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집토스에 성공적으로 합류했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의 조력에 힘입어 집토스는 매출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올해 집토스는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성장할 계획이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는 500억 원 규모의 '코오롱 2020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펀드를 결성했다. 앵커 출자자(LP)인 모태펀드는 300억 원을 출자했고, 여기에 코오롱인베스트먼트와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각각 60억 원과 70억 원을 보탰다. 이어 기타 민간 LP들도 자금을 댔다. 올해 첫 번째 펀드다. 코오롱인베스트먼트는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 사업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펀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된 뒤 발 빠른 펀드레이징에 나섰다. 펀드 결성과 동시에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있으며, 한편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AUM은 3,515억 원에서 4,015억 원으로 늘어났다.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가 창업 초기기업 발굴에 시동을 건다. 약정총액은 300억 원이며 대표펀드매니저는 김대현 투자1본부장(상무)이 맡는다.

주요 출자자는 모태펀드와 키움인베스트먼트로 모태펀드가 150억 원을, 키움인베스트먼트가 90억 원을 출자했다. 키움인베스트먼트는 일정 수준 벤처펀드 규모를 유지하면서 출자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

지난해 청산한 '키움성장12호 일자리창출투자조합'은 내부수익률(IRR)이 21.97%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로 청산을 완료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펀드 주목적에 맞게 아스트, 듀켐바이오, 켐트로스 등 전통 제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기술투자의 생명공학 기업 '바이오앱', 5세대(5G) 통신 장비기업 '와이팜' 투자는 지역기반 벤처기업 육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는다. 특히 2007년부터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와이팜 투자는 포스코기술투자의 위기 관리능력과 끈기가 돋보인다. 5G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와이팜은 포스텍 졸업생인 유대규 대표가 2006년 설립했고, 무선 통신 분야의 핵심 부품인 전력증폭기를 제조한다. 사업 구체화 단계였던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후속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4G 통신 시장의 표준이 와이팜이 주력하던 와이브로가 아닌 LTE로 결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위기의 순간 포스코 기술투자는 회수 전략이 아닌 와이팜의 생존과 재기를 위해 62억 원을 투자해 LTE용 전력증폭기 개발에 성공한 와이팜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위기 극복에 성공한 와이팜은 2015년부터 성장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지난해 매출 1254억 원, 순이익 113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첫 투자 당시 45억 원이던 기업가치는 2019년 3,200억 원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가 22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한국투자증권의 PB 고객으로부터 180억 원을 출자받고 한투파 자체자금 45억 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투자 광개토 투자조합' 펀드 설립을 위해 한투증권으로부터 180억2,000만 원을 출자받는다고 공시했다. 한투증권 PB센터 고객들의 자산을 기반으로 펀드가 조성되며 총 펀드 결성금액은 225억 원이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이번 달부터 2027년 5월까지 총 7년 간 운영하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에 자금이 투입된다. 한투파 측은 특정 회사 및 사업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BNK벤처투자

BNK벤처투자의 '에너지융합 UQIP 투자조합'은 '딥테크(원천기술)'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펀드로 두각을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지닌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투자 재원을 소진하고 포트폴리오 회수를 준비한다.

약정총액 500억 원의 '에너지융합 UQIP 투자조합'은 보유한 벤처펀드 가운데 가장 많은 운용금액을 자랑한다. 존속기간은 8년으로 2024년까지다. 성과보수를 받는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5%다.

DSC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는 1,000억 원 규모의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펀드(가칭)' 결성에 착수했다. 펀드 결성이 완료되면 DSC인베스트먼트의 두 번째 1,000억 원대 펀드가 된다. 앞서 DSC인베스트먼트는 성장지원펀드 스케일업 혁신 분야 운용사(GP)로 최종 선정됐다. 성장지원펀드 출자비율이 30%인 것을 감안하면 앵커 자금이 300억 원에 달한다.

초기 투자의 강점을 살려 딥테크(모빌리티·AI·첨단소재·로보틱스)와 바이오·헬스케어, 컨텐츠, 커머스 등에 집중하며, 시리즈A부터 C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팔로우온(후속투자)을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DSC인베스트먼트는 12개의 조합을 운용 중으로 AUM이 4,342억 원이다. 꾸준히 펀드 약정총액이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스케일업펀드와 프로젝트펀드 결성이 완료되면 AUM이 5,500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IMM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600억 원 규모의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4호' 조성을 마무리했다. 2019년 말 국민연금 출자사업에서 위탁운용사 지위를 따낸 지 4개월여 만이다. 올해 벤처펀드 자금조달 여건이 녹록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앵커 출자자인 국민연금에서 300억 원을, 나머지를 민간에서 조달했다.

IMM인베스트먼트의 세컨더리 전용 펀드는 이번이 7번째다. 지난 2010년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로부터 출자받아 조성한 2개 세컨더리펀드 이후 2014년 성장사다리펀드로부터 출자받아 3번째 세컨더리펀드인 '2014 성장사다리-IMM 벤처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연수원 소식

「2020년 제30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2020년 제30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이 성료됐다. 해당 교육은 전문적인 심사 및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0년 8월 첫 시행됐다. 차기 31기 전문가 과정은 7월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일 자** | **공통과정 :** 2020년 5월 18일 ~ 5월 22일(5일 합숙)
  | **필수과정 :** 2020년 5월 27일 ~ 5월 29일(3일 온라인 강의)
- **장 소** | **공통과정 :** 경기도 여주시 썬밸리호텔
  | **필수과정 :** 온라인 강의 운영

내 용	
공통과정	**필수과정**
벤처캐피탈 개요 및 필수 용어 정리	투자계약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한국의 벤처캐피탈산업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투자단계별 특징	비상장기업 업종별 재무제표 주요 이슈 및 사례
벤처캐피탈과 법률	[특강 I] What makes a good Venture Capitalist?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Due-Diligence 사례	
벤처캐피탈과 지식재산권	벤처캐피탈리스트와 윤리
Valuation & Pricing	심사보고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 (1) 제조/전기/기계/장비
PEF 개요 및 투자사례	
해외 투자사례-동남아 시장에 대한 이해 및 투자전략	심사보고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 (2) 바이오
벤처기업 M&A 절차 및 사례	심사보고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 (3) ICT 서비스/유통 서비스
[특강] 투자 비하인드 스토리	
IPO와 회수전략에 대한 이해	문화콘텐츠 펀드의 운영 사례 및 회수 전략 등
소셜벤처 개요 및 투자사례	
벤처캐피탈 설립 및 벤처조합 운용실무	[특강II]인공지능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

2020년 6월 교육안내

- **교 육 명** 2020년 벤처캐피탈 바이오 어드밴스드 과정
- **운영 형태** 3일 출석
- **일 자** 6월 3일 ~ 6월 5일
- **장 소** 서울시 서초동 교대 코지모임공간 4층(교대역 1번출구)
- **대 상 자** 벤처캐피탈 업계 및 금융관련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
- **과정 개요** 바이오산업 내 유망 분야별 동향 및 전망 파악, 투자 사례 분석

- **교 육 명** 2020년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 **운영 형태** 3일 출석
- **일 자** 6월 10일 ~ 6월 12일
-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아름다운빌딩 6층, 위플레이스 역삼2호점
- **대 상 자** 벤처캐피탈 업계 및 금융관련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
- **과정 개요**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심사 역량 강화 교육

- **교 육 명** 2020년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초급과정(1차)
- **운영 형태** 2일 출석
- **일 자** 6월 24일 ~ 6월 25일
- **장 소** 서울시 서초동 교대 코지모임공간 4층(교대역 1번출구)
- **대 상 자** 벤처캐피탈 업계 및 금융관련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
- **과정 개요** VC 및 VC조합 전반 이론 교육

- **교 육 명** 2020년 추정재무제표작성 & Valuation과정(1차)
- **운영 형태** 4일 출석
- **일 자** 6월 30일 ~ 7월 3일
- **장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위플레이스 역삼3호점
- **대 상 자** 벤처캐피탈 업계 주니어 투자심사역
- **과정 개요** 재무 모델링을 통한 기업 가치 분석 및 평가 방법

Epilogue

격려와 사랑이 담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왠지 들떴던 마음도 가라앉히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일들도 한 번 되돌아보며 여유를 가져보세요. 〈VC Discovery〉도 분주한 일상 속의 작은 쉼표가 되고 싶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VC Discovery 6월호에 대한 후기 및 퀴즈의 정답을 작성해 담당자 newsletter@kvca.or.kr 로 보내주신 분 중 3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퀴즈

Q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사회 변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Backlash)의 합성어다. 거대 IT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적대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대표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이에 따르는 본사 지역의 집값 폭등,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반대 정서가 확산되면서 생긴 용어다.

※ 출처 : 리더스경제

A OOOO

지난 호 정답 스케일업

이달의 VC 용어

차등의결권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 불공정한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비상장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업 상장 이후에도 차등의결권이 유지될 경우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회수 작용을 하는 M&A활성화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





VC Discovery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VC Discovery〉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VC Discovery〉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02)2156-2141 • FAX (02)2156-2110

• E-mail newsletter@kvca.or.kr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